

파견기간	24-2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1435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성 명	권진아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02 월 20 일			
지원자*	권 진 아 (권진아)			

(서명은 성함 타이핑으로 같음 가능하며, 수기로 수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은 언제나 제게 대학생활 중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심없이 대학을 다니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방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꼭 언제든 해외생활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교환학생만큼 보충된 신분과 주거 등으로 안전하게 해외에서 살아 볼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여 본부 주관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는 베를린에 위치한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일단 독일이 공학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독일에 위치한 공과대학들로 교환학생을 나오면 공대 GLP 에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일단 저는 다시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원하는 파견교를 아무 곳이나 골라서 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 베를린과 베를린 공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으로는 유럽의 대도시 치고 마트 물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24 시간 s 반과 u 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다녀서 매우 편리하고, 베를린 공항이 국적이 다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뮌헨 공항과 달리 유럽을 연결하는 저가 항공들이 많이 다녀서 저렴하게 여행 다니기가 매우 좋은데, 제가 사는 곳에서도 s9 만 끝까지 타고 가면 공항이 있을 정도로 교통이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이 많아서 베를린 공대 한인학생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가 잘 되어있어 정보 얻기가 좋습니다. 아시안이 많아서 **Go Asia** 등의 아시안 마트에서 저렴하게 한국 음식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베를린의 웬만한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도 전혀 소통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다들 영어를 잘 합니다. 흔히 “노잼” 국가로 꼽히는 독일에서 그나마 “유잼” 도시를 꼽자면 베를린일 것 같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사실 가장 처음 골머리를 앓은 지점입니다. 독일에 와서 받을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것(주변에서 그랬다가 귀국할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온 사람도 봤습니다)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한국의 독일대사관에서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로 가면 평일 아침 7 시(써머타임 없으면 8 시일 것 같네요)에 한 달 후 비자 테어민이 열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autofill 같은 팁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잡고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서울역 근처의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면 되는데, 비자가 나오는 데는 2 주 정도 걸리니 출국 두-세달 전에는 꼭 비자 잡는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서류로 필요한 것 중에 준비하기 번거로운 것이 슈페어콘토와 보험 서류가 있는데요, 슈페어콘토는 독일에서 “나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를 증명하는 최소 금액이 비자 발급 기간만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좌이고, 저는 **Expatrio** 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934** 유로*6 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타 비용까지 한화로 **800** 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 서류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Expatrio** 를 통해서 공보험과 같이 패키지로 묶어 진행하지만, 공보험의 가격이 제가 든 **Dr.Walter** 사의 사보험보다 3 배 정도 비싸서 저는 그 돈으로 여행 한 번 더 가자고 생각하고 사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보험은 그냥 체류 기간 동안 보험을 구매해두고 서류를 받은 다음에, 공보험사로 연락하여 베를린 공대로 **waiver** 보내달라고 연락해야 합니다. **Waiver** 를 요청하는 메일에 Lena.Huebner-1@tk.de (tk 사 담당자) 베를린공대의 학교 번호인 **H0002271** 를 명시하고, 사보험 서류를 첨부한 다음 면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독일에선 병원을 가려고 해도 테어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보험을 든 친구들도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을 가지 않아서 보험료가 가장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사보험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STW 라는 베를린의 학생 기숙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통 따로 아파트를 구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기숙사에 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우에 파견된 학생이면 보통 **Siegmunds Hof Haus 1**(이하 지그문트), **Hans und Hilde Coppi**(이하 코피), **Hubertusallee** 를 선택할 수 있을텐데 마지막 기숙사에 사는 한인 교환학생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고, 교환학생 기숙사인 지그문트는 보통 후기보면 많이 시끄럽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공용 공간에서 가장 먼 끝방이라서 귀마개 끼면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공용 주방, 화장실, 샤워실을 한 층의 20 명 정도가 나눠서 사용합니다. 세탁실은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그문트의 다른 **Haus** 들과 공유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92X** 기숙사에 살았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고, 청소해주는 분이 따로 계셔서 오히려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피는 보통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 교환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멀지만 지그문트보다 방이 넓고 한 플랫을 3 명에서 나눠 쓰기 때문에 평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독일은 따로 **tuition fee** 는 없고, **student fee** 로 맨 처음에 **249.35**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제메스터 티켓(독일 내 모든 근거리 운송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 49 유로 티켓)이 6 달치 포함된 가격이어서 **ICE**(한국의 **ktx** 개념) 등을 제외한 **s** 반, **u** 반, 버스, **RE** 등등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기숙사 비는 한달에 저는 **342** 유로였고, 지그문트와 코피 모두 보통 **350** 유로 정도 하는데, **stw** 로 자동이체(**sepa-mandate**)를 걸어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N26** 계좌를 열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patrio** 의 슈페어콘토로 보내둔 돈을 **N26** 계좌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아마 애플 유저시면 애플페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 안드로이드 유저시면 해외에선 보통 삼성페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Google play store** 계정을 하나 더 만들고 국가 설정을 독일로 바꿔서 **Google pay** 를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교환학생들이 많이 여는 **N26** 등의 계좌는 실물카드를 발급하려면 돈이 따로 들기 때문에 구글페이에 **virtual card** 등록해서 쓰시면 한국에서 삼성페이 쓰는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제메스터 티켓도 등록해놓고 불시검문 받을 때마다 구글페이만 열어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비행기 티켓, 버스 티켓, 웬만한 공연 티켓들도 전부 구글페이에 등록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이면 **Aldi** 의 유심을 많이 쓰던데, 저는 한국에서 받는 문자를 활성화해놔기 때문에 한국 유심을 뺄 수가 없어서 **Vodafone** 사의 **esim** 을 사용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만큼 **credit** 을 **top-up** 해두고 거기서 설정해둔 요금제만큼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구글 플레이 계정을 독일로 우회해두면 **Mein Vodafone** 이라는 앱을 설치할 수 있으니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요금제 변경,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멜등(거주 등록)을 해야 독일 번호 개통을 할 수 있는데, 베를린은 대도시이다 보니 안멜등 테어민도 잡기 힘들어서 한국에서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120686/> 사이트에서 입국 한달 전 정도에 미리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비자만큼 잡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제가 두번째로 골머리를 앓은 지점입니다. 한국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강의 계획서 같은 것을 편하게 다 확인하고 영어로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 테우 같은 경우는 **isis** (서울대의 **etl** 같은 개념)와 **moses**(강의 계획서와 시험 등록 모듈)가 따로 존재합니다. 교환 학생으로 등록이 되면 베를린 공대에서 영어로 열리는 강좌가 메일로 오긴 하는데, 거기에 없는 강의들도 많고 그 학기에 안 열리는 강의들도 많으니 일일이 **moses** 에서 강의계획서 찾아보시고, **isis** 로 강의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moses** 에서 영어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강의는 영어 강좌니 독일어를 못하시면 그렇게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을 받을 때는 교환학생의 경우 테우에서 주는 **schein** 이라는 모듈을 교수님한테 직접 드리고 성적을 받으면 되긴 하는데, 시험을 등록하려면 **moses** 에서 안멜등을 해야하거나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공지 잘 찾아보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 시험등록 != 성적 수령입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전기정보공학부라서 최대한 반도체나 컴퓨터 관련 강의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사 수업은 영어로 열리는 게 거의 없어서 석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학사가 3 년이기 때문에 석사 1 년차 수업은 한국 학부생이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이 수업은 재료를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양자역학의 기초나 전자 파동 함수의 주기성 등에 대하여 배우면서 이론적 배경을 쌓고,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DFT** (밀도범함수이론)와 **Molecular Dynamics** 등 원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배우고 **nanohub** 등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합니다.

Computer-Supported Interaction

이 수업은 **AI** 가 어떻게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머신러닝이 주 내용이고, **Speech Recognition** 등 **man-man interconnection** 혹은 **man-machine interconnection** 에서 **AI** 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이 수업은 베를린 공대의 **ZEMS** 라는 언어 교육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면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오히려 교환학생들이 듣는 독일어 수업보다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영어 같은 수업입니다.

TU Sports

학교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강좌입니다.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는데(광선검 싸움 같은 과목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으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 **OT** 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데, 인기 있는 강좌들은 빨리 마감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K-Pop** 수업을 들었는데, 케이팝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학습 방법

사실 한국의 학습 방법과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전공 과목들의 경우 교수님들이 모두 **ppt** 를 제공해주셔서 한국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한국에서 초급독일어 1 을 수강하고 갔지만, 사실 여기서 쓰는 독일어는 "**Mit Karte, bitte**"(카드로 할게요), "**Danke, schon**"(감사합니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어가 잘 통해서 베를린에서는 한 번도 독일어를 말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9 월 말에 출국했지만, 보통 친구들은 9 월 초에 와서 **German Intensive Course** 를 수강하니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시다면 꼭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ZEMS에서 열리는 언어 수업들에 독일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이탈리아, 중국어, 영어 등 정말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무슨 독일까지 가서 영어 수업을 듣나 싶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초적인 수준의 독일어로 하는 수업보다, 비교적 유창한 언어인 영어로 베를린에 사는 친구들의 생각을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흥미 있는 수업은 신청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수업과는 달리 언어 수업은 **8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까지 잘 고려하고 수강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한국에 있는 것 전부 여기 다 있는데, 겨울에 오신다면 꼭 전기장판과 롱패딩 챙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방에 라디에이터 써서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저당 소스류 챙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저당, 제로 칼로리가 한국만큼 많지 않아서 마트에서 제로 스프라이트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드 저당 소스, 알룰로스 등등 챙겨오시면 나머지는 정말로 다 있으니 한식 그리울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마트 물가는 정말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이것도 많이 오른 편이라고는 하는데, 야채나 과일이 정말 싸니까 여기서는 웬만하면 해 드시는 것 추천합니다. 외식물가는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저는 케밥 말고는 베를린에선 외식을 다섯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마트 물가는 카우플란드가 가장 물건이 많고 싸고(한국의 코스트코 같은 느낌), **Lidl**이나 **Aldi**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그문트 사시면 근처 **Hansaplatz**의 **REWE**나 **Zoologischer Garten**의 **Hit** 많이 가실텐데 **REWE**나 **Hit**, **Edeka**는 비싼 편입니다. 각 마트 앱을 설치하면 추가 할인이 되거나 그 주의 할인 상품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Go Asia**는 매달 첫번째 주 토요일에 **10%** 할인하고, 이외에는 베를린 공대 학생증 지참하면 **5%**씩 할인해주니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Alexanderplatz**의 카우플란드와 고아시아, **DM**을 묶어서 가거나 **Friedrichstrasse**의 **REWE**와 고아시아를 묶어서 갔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외식 물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비싼 편입니다. 마라탕 **100g**에 보통 **3**유로 정도 하니 한국의 **2**배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식이 너무 그리우시면 프라하가 가까우니(버스 타고 **4**시간) 한인민박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를린 곳곳에 **Mensa**(학생 식당)가 있는데, 이곳은 정말 저렴하고 메뉴가 다양합니다. 보통 기숙사에서 빨래를 하려면 멘자에서 키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들리게 되는데, 이때 충전한 키로 음식을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UDK**와 **TU** 멘자(**TU** 바로 근처입니다)의 브라우니가 맛있으니 꼭 드셔 보세요.

은행은 딱히 갈 일이 없었고, 병원 또한 테어민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간에 저도 병원 갈 일이 생겼지만 독일어를 못해서 그냥 참고 한국에서 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아프지 마세요.

교통은 베를린 안이나 독일 국내 여행 중에는 제메스터 티켓으로 거의 해결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Flixbus**나 **Regiojet** 많이 이용하실텐데 **Omio**로 가격 비교하고 각 버스 앱 설치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쉽니다!!

통신은 여기서도 카드 결제, 회원가입 등 한국 번호로 인증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국 유심은 끼워두고, 요금제 정지 후 부가서비스로 문자 수신은 가능하도록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odafone**으로 **esim**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Vodafone esim** 쓰면 **EU** 내에서는 로밍 필요없이 그냥 쓰면 돼서 여행 다녀도 신경 안 쓰고 편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동아리는 따로 들지 않았지만 **TU Sports**나 영어 수업에서 만난 한국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정말 고맙고 좋은 인연들입니다. 또, 베를린 공대 한인 학생회(인스타그램 @kostub.offiziell)에서 주최하는 개강파티에 가서 한국인 분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나왔으니 외국인 친구만 사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면 생각보다 문화가 달라 대화하기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수목에만 수업을 듣고 금토일월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유럽 저가항공은 잘 잡으면 베를린에서 런던을 왕복 7 만원에 다녀올 만큼 정말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하물을 추가하면 가격이 두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낭여행으로 짧게 여기저기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는 빨리 살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계획은 미리 세워주세요! 2 학기에 교환 오실 경우 유럽 겨울 날씨는 최악이기 때문에 9, 10 월에 빠르게 여행 많이 다녀오시는 것 추천합니다. 유럽 학생 비자가 있으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궁전 무료,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무료 등등 정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 비용 날리지 말고 학생 비자 요긴하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직항이 있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영프스이 같은 곳보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이나 아이슬란드, 모로코 등을 다녀오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편이긴 했지만, 베를린도 정말 볼 것이 많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매달 첫번째 주 일요일에는 베를린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전부 무료 개방이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있는 빈티지샵과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테크노 클럽의 성지이기도 하니 한번 경험 삼아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일정 확인해두고 U-30 티켓으로 미리 예매해두면 조성진 님 등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을 20 유로도 안되는 가격에 볼 수 있으니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보통 한국에선 유럽 치안이 너무 안 좋다고 겁을 주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소매치기나 치안에 위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베를린 서쪽은 제 생각엔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에 캐리어를 두고 내렸는데, 그 다음날 분실품 하나도 없이 다시 찾을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은 하지 말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한국에서 저는 에이**, 지그** 등의 앱으로 옷쇼핑을 하였는데요, 독일에선 ZARA 나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가 있긴 해도 한국보다 비싸고 돌아갈 때 짐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Shein 이라는 중국 앱으로 한철 입을 옷을 사서 이 곳에서만 입고 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Amazon 이나 Shein 등으로 택배를 시킬 때는 집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Paketshop 으로 시킬 수도 있는데요, 집에 택배 기사가 도착했을 때 제가 집에 없으면 다시 반송된다고 하여 보통 저는 Hermes 의 Paketshop 으로 Pick&Collect 했습니다. DHL 은 회원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Hermes 사의 Paketshop 으로 시키고, 여권 들고 가서 택배 받아오면 됩니다.

Amazon 의 경우 테우 학생 메일을 받으면 1 년 동안 프리미엄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록해두시길 바랍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정말 너무 행복한 한 학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슬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만 아직 베를린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다 보니, 굳이 한국에서의 정상성에 들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저를 파악할 수 있었던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인지를 묻는다면 당당하게 베를린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도시와 유럽에서의 5 개월이 정말 꿈같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5 개월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두에게 너무 고맙습니다.